

故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사격 목격 천주교 신자 이광중씨 첫 증언 나선다

조비오 신부, 피해 우려해 신분 숨겨... 오늘 전두환 재판 증언대에 본보와 통화서 "불로교 상공서 헬기 사격했다"... 중요 진술 될 듯

5·18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사격을 목격한 천주교 신자가 처음으로 증언대에 선다. 이 신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를 다루는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조비오 신부는 생전에 "(헬기사격을) 함께 목격한 평신도가 있다"면서도 피해 등을 우려해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이와 함께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문 등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전두환(88)씨의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 선고는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은 전씨가 올 3월 첫 출석한 이래 6번째 증인신문으로, 1980년 5월 광주 호남동 성당에서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

격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천주교 신자 이광중(72)씨 등 5명이 법정에서 증언한다.

조비오 신부는 1989년 방송에 출연해 처음으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하고 같은 해 열린 국회 광주 진상조사특위와 1995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으나, 함께 목격한 사람은 피해를 우려해 끝내 밝히지 않았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전 재판에서 "(조비오 신부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평신도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한 대목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라는 점에서, 이광중씨의 헬기 사격 목격담은 조 신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 진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호남동성당 신도모임 총무였던 이

씨는 신부들의 심부름을 하던 중, 1980년 5월 21일 광주시 동구 호남동성당 입구에서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기총 사격을 목격했다.

이씨는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6일 광주 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공회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등 신부들이 계엄군의 과격 진압을 만류하려 가기 전 호남동성당에 모인 날이니 정확히 5월 21일로 기억한다"며 "늦게 도착한 조비오 신부가 갑자기 '보스코 총무(이씨), 이리 와보소'라고 성당 입구로 다급히 불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씨는 "불로동 다리 상공에서 앞모양이 동그런 헬기가 광주천을 향해 '타타타, 타타타'하는 총성과 불빛을 내며 사격하고 있었다"며 "조 신부는 '위대 안되겠네. 요즘들이 헬기에서 기총사격까지 하네'라고 분개하며 도청을 향해 나가셨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신부가 1989년 국회청문회에서 밝힌 "(1980년) 5월 21일 낮 1시 반에서 2시 사이 불로교 상공 170m 지점에서 사격 공원을 향해 떠 있는 헬기를 봤다.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드드드드' 세번 울리고 동시에 불이 픽 나갔다"는 헬기 사격 최초 증언과 일치한다.

이씨는 "그동안 평신도 입장으로 섰 못 나가서 망설여져 말을 아꼈다"면서도 "최근 조영대 신부의 요청으로 조비오 신부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법정에서 나가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이번 법정 증언에서 특별히 전두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며, 직접 눈으로 본 헬기사격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 이후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는 전씨는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현장검증 등을 추가로 진행해야 해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피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폐형광등 정리 광주시 북구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최근 건국동 재활용 선별장에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수거해온 폐형광등을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안타까운 오토바이 사고 외출 나선 할아버지·손녀 트럭과 충돌사고로 중태

휴일 한바탕 외출에 나섰던 할아버지와 손녀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6일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강진군 작천면 한 교차로에서 A(70)씨의 1t 트럭과 손녀를 태운 B(70)씨의 오토바이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손녀(9)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손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구조 헬기를 이용해 전남대학교 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호송됐으며,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kwangju.co.kr

수사정보 흘리고 뒤통스 찡기고... 3년간 광주·전남 경찰 5명 기소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동안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 5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까지 유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국 경찰관 28명 중 광주·전남청 소속은 5명이다.

광주청 소속 A경위는 2017년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람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바로 검거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3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위는 같은 해 관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1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경위는 알고 지내던 식품 업주에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과 증거물, 참고인 진술 내용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청 소속 D경위는 관공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검사 수사 지휘서

를 복사해주는 등 수사 방향에 대해 알려준 대가로 45만원을 받아 챙겼고, E경위는 올해 형사와 강력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와 친분을 유지하고 단속계획에 대한 지방청 지시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전남지방청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비위 경찰 적발 시 선처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음주사고로 학우 잃은 광주교대 학생들 북부경찰에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지난 7월 음주운전 사고(광주일보 2019년 7월 30일자 6면)로 광주교육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학우를 잃은 학생들이 경찰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지난 8월 음주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인원 17명으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최근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마무리하고, 학교 앞 음주·과속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경찰에게 요청했다.

광주교대 학생들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 앞을 지나 '필문대로·서암대로' 상에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과속·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들은 또 "사고가 난 도로 앞은 부설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과속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과속 방지턱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인 '필문대로와 서암대로'은 왕복 7차선 도로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마련하고, 총 4곳(550m)에 걸쳐 간이형 중앙분리대 등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또 "광주교대 정문 앞 도로에 추가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교 주변 이면도로 등에서 음주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운전 하다, 음주단속 피하다... 교통사고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30대가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은 6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A(2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 두대와 충돌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5%로 측정됐으며, A씨는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에 이어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와 함께 이날 광주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공사현장으로 돌진한 B(3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일 밤 11시 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공사장 철제 가림막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78%로 측정됐다. B씨는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후진을 하던 중 이를 본 경찰이 접근하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소방시설 오작동 따른 출동 3년 6개월간 6600건

광주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소방대원의 출동 건수가 6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방시설 오작동 출동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전국의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한 횟수는 5만656건이었다.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소방대원들이 하루 평균 40번꼴로 불필요한 출동을 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347건, 2017년 1만4477건, 2018년 24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6월 기준)는 838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만49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7718건), 광주(6624건), 울산(3770건) 등의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차량서 부탄가스 흡입 후 담뱃불 켜다 "평"... 화상 병원행



○...차량 안에서 부탄 가스를 흡입한 뒤 담뱃불을 켜던 30대가 차량 내부 폭발로 화상을 입어 병원행.

○...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0시35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이면도로에 주차된 A(38)씨의 1t 트럭 내부에서 '평' 소리와 함께 불길기 치솟았으며, 차량 안에 있던 A씨는 얼굴과

상반신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기본이 울적해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데 갑자기 폭발했다"고 진술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입건할 방침.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높은 전용면적 75%
11, 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 완비
300대 이상 주차공간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